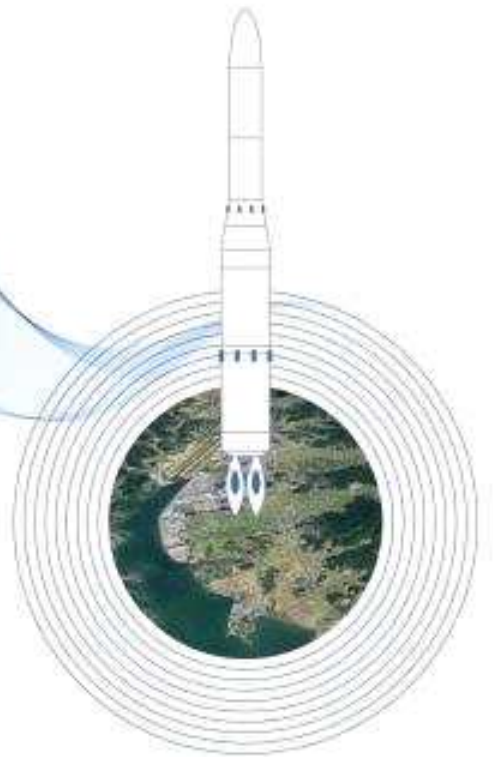


2023. 12월

우주항공산업 동향



우주항공과 미래도약
함께 합니다.



우주항공산업 동향

관 내 동 향

사천시, 우주항공청 설립 지원 준비

- 사천시가 14일 우주항공청 설립지원을 위한 ‘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’ 최종보고회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.
- 이날 보고회는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관계자, 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 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.
- 사천시는 지난 1년여간 용역을 통해 ▲도시 여건 분석과 항공우주 선진도시 개발사례 분석 ▲도시발전 계획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▲우주항공청 중심 행정복합타운 개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.
- 특히 시는 이번 용역의 성과물을 토대로 경남도와 함께 ‘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’을 구성·운영할 계획이다.
- 박 시장은 "특별법이 늦어지고 있지만 준비는 사전에 해야한다"며, "금번 기본구상을 토대로 추후 관계자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사천시, 내년 초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출범

- 사천시가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.
- 추진단은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경남도·사천시 공무원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한다.
- 추진단은 정부가 주도하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,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, 정주 여건 개선·기업 유치 계획 등을 미리 세우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.
- 경남도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·기업, 교육기관이 입주하고, 쾌적한 정주 여건에 자족 기능까지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.
- 시는 연말까지 추진단 구성을 끝내고 2024년 새해 1월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.

KAI, 3500억 회전익 공지통신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방위사업청과 국산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공지통신무전기(SATURN) 성능개량 사업계약을 체결했다
- 이번 사업은 KAI가 만든 육군의 수리온, 메디온, 소형무장헬기(LAH), 해병대 마린온의 무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500여억 원 규모이다.
- 국내·외에서 운용 중인 군용 무전기는 지난 1984년부터 적용 중인 HQ-II 방식으로 보안 취약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.
- 이에, 방위사업청은 육·해·공군이 운용 중인 군 전력을 대상으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KAI는 SATURN 무전기 체계 통합·탑재와 시험평가, 감항인증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LIG넥스원과 기술협력 생산을 통해 향후 무전기의 국내 정비를 가능케 해 국산화 추진 여건을 보장할 전망이다.

켄코아, 군수송기 엠브라에르 컨소시엄 선정

- 방위사업청(방사청)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-390 기종이 확정된 가운데 해당 사업 컨소시엄의 최대 참여자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도 수혜를 받게 되었다.
- 본 사업은 방사청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10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.
- 엠브라에르는 켄코아를 비롯해 총 3개의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켄코아는 전체 물량의 과반을 맡은 최대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다.
- 켄코아는 2021년 방사청이 처음 도입한 컨소시엄 형태 절충교역에 업체 모집 시점부터 참여해 왔으며 내년 중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
- 이민규 켄코아 대표는 "엠브라에르 전체 컨소시엄 물량 중 과반수 이상이 켄코아와 확정돼있는 만큼,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도 내 동 향

경남도, 미래항공산업 추진사업 자체평가 워크숍 개최

- 경남도가 사천 아르떼 리조트에서 미래항공산업 추진사업인 ‘미래항공기체(AAV, Advanced Air Vehicle) 시제기 개발사업’, ‘미래항공교통(AAM, Advanced Air Mobility) 향로 발굴사업’과 ‘2023 에어로스페이스 국제컨퍼런스(AICon 2023)’에 대한 연차보고회 및 자체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.
- 이번 워크숍은 ▲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결과보고 및 논의 ▲'23년 미래항공 신규 사업인 미래항공기체(AAV) 시제기 개발 및 미래항공교통(AAM) 향로발굴사업에 대한 연차보고 ▲‘항공기 인증과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(eVTOL) 인증 동향’에 대한 파블로항공 김명집 이사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.
- ‘미래항공기체’, ‘미래항공교통’ 사업은 각 컨소시엄에서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▲시제기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(주)엔젤릭스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개념설계 및 형상설계 내용을 발표하고 ▲향로발굴을 주관하고 있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(주)에서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에서 자란도, 사랑도를 거쳐 삼천포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향로 및 버티포트(수직이착륙장) 최적지를 발굴하여 발표하였다.
- 경남도는 24년도에도 미래항공기체(AAV) 실증센터 구축, 경남형 미래항공기체(AAV) 시제기 개발, 경남형 미래항공교통(AAM) 향로발굴 및 실증사업, 2024 에어로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(AICon 2024) 개최 등을 통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경남도, 경남 항공부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

- 경남도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사천·진주시, (재)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3년 경남항공부품 수출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.
- 이번 워크숍은 경남 우주항공 관련 기업,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국내·외 우주항공산업 현황 및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수출 활성화방안 및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.
- 워크숍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신만희 본부장, 한국무역협회 장승한 관세사,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산업지원단 이은균 단장이 ‘우주항공산업 미래와 발전전략’, ‘항공기 부품 수출 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방안’, ‘경남 중소항공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’ 등 3가지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.
- 또한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승조 명예교수가 ‘대한민국 우주 경제 비전’의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한국의 발사체 기술 현황과 함께 향후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.
- 참석자들은 최근 전 세계 항공산업의 공급망 재편 및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, 지역 내 항공 중소기업들의 재도약을 위해 경남도의 지속적인 기업지원 사업 추진 및 확대를 요청하였다.

경상국립대 글로벌대학 비전선포식 개최

- 경상국립대가 가좌캠퍼스 GNU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글로벌 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.
- 비전 선포식은 경상국립대가 글로벌대학 사업에서 제시한 비전·목표·추진전략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제고해 지역혁신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.
- 비전 선포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, 권순기 총장, 박완수 경남도지사,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,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글로벌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, 산업체, 대학, 연구기관, 출연·관계기관, 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.
-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·방산 분야의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경남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.
- 글로벌대학은 지역 산업·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, 교육부는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.

국 내 동 향

복권기금, 국내 스타트업의 우주 시장 진출 지원

- 국내 스타트업의 우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복권기금이 ‘스페이스 이노베이션’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.
-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중소·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초소형 위성 기반 우주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우주 검증 및 사업화를 뒷받침한다.
- 우주산업은 체계 활용을 위한 우주검증 이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나 중소·벤처 기업의 여건상 자체 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위성을 발사할 기회가 적어 우주환경에서의 기술검증에 한계가 있었다.
-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산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했다.
-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3단계로 기업당 비행 모델 개발을 위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한다.
- 사업비 전액은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며 복권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억 원을 투입했다.

서울 근교에 국내 첫 UAM 배터리 공장 건설

- 현대자동차와 SK 등이 투자한 미국 배터리업체 SES가 서울 근교에 국내 첫 도심항공교통(UAM) 배터리 생산시설을 짓는다.
- 치차오 후 SES 대표는 'SES 배터리 월드 2023' 기자간담회에서 "서울과 가까운 곳에 UAM 관련 생산시설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"며 "이 시설은 UAM 셀, 모듈, 팩 등을 제조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- UAM 전용 공장이 추가되면 한국에 있는 SES 제조 시설은 충주에 설치된 3개의 라인에 더해 총 4개가 된다.
- SES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4% 높은 용량의 리튬메탈 배터리를 개발 중이며 2025년 리튬 메탈 배터리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.
- SES는 입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.

LIG넥스원, 美로봇업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

- LIG넥스원이 4족 국방용 로봇으로 유명한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.
- 최근 LIG넥스원은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0%를 약 3150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.
- LIG넥스원은 지분 인수를 위해 미국에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LNDR(가칭)에 1877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대금은 한국투자 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하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.
- 고스트로보틱스는 지난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설립된 로봇제조 업체로 이 회사의 4족 보행 로봇인 '비전60'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국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.
- 한편 고스트로보틱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며 국내외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해 외 동 향

독일 볼로콥터, 일본에서 eVTOL 시범 운행 성공

-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 부문 글로벌 선두 스타트업인 독일 볼로콥터(Volocopter)가 2025년 엑스포를 앞두고 일본 오사카 및 아мага사키 시에서 eVTOL(수직이착륙) 에어택시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.
- 이번 테스트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세계박람회에서 상용화된 eVTOL 에어택시 운행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현지에서의 상용 비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.
- 볼로콥터는 일주일간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최종 목표는 자율 주행이지만 이번 시범 비행 기간에는 승무원이 탑승해 비행의 안전성과 에어택시의 기계적인 기능과 성능을 점검했다.
- 이번 행사에 투입된 기체는 볼로시티 2X 모델로 한 번 충전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27분 동안 비행할 수 있다.
- 이 기종은 안전성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어 일본 뿐 아니라 싱가포르 및 미주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, 보급에 따른 각국 정부의 지침 마련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.

중국 민간 우주기업, 세계 최초 메탄 로켓으로 위성 발사 성공

- 중국의 민간 우주기업 란젠우주항공이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을 이용해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.
- 란젠은 12월 9일 고비사막에 있는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액체 메탄 로켓으로 흥후, 흥후2, TY-33 등 3개 위성을 발사하여 460km 태양동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.
- 로켓은 고성능·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을 사용해 고체연료나 액체수소 등을 사용하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하다.
- 란젠 측은 이번에 발사된 위성들의 크기나 중량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500km 태양동기궤도에 최대 1.5톤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란젠은 액체 추진 연료 로켓의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연간 12회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작성일	2023. 12. 20.(수)	보고일	2023. 12. 20.(수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김난주(055-831-3473)